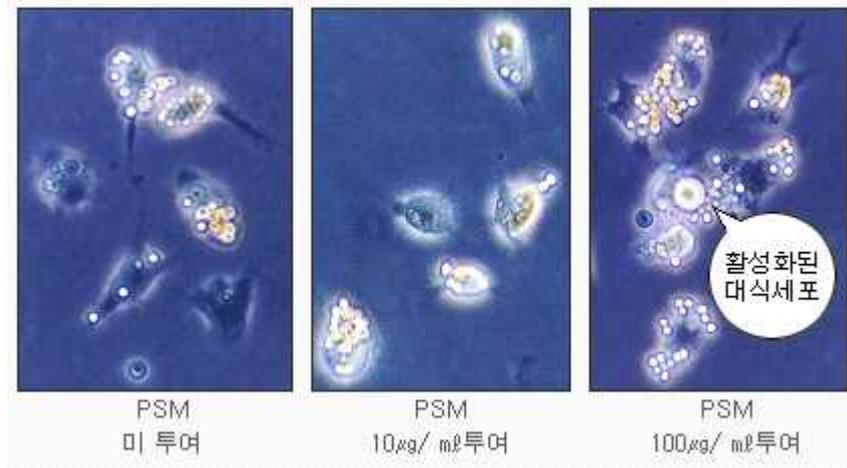


항기부정단 효과

항기부정단(면역플러스)은 노루궁뎅이버섯과 황기를 주성분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 중 부작용 감소 및 면역력 증강, 암환자 종양면역 활성화 및 종양증식 억제에 활용되며, 종양면역의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 대식세포(Macrophage), 자연살해세포(NK cell)를 활성화시켜 종양의 증식을 억제함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면역플러스의 임상연구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 1998. 1. 1부터 2000. 10. 1까지 치료 받았던 각종 암환자 121명을 대상으로 면역단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1) 면역플러스의 안전성

간장과 신장에 대한 안정성 검사에서 간장의 염증지표인 GOT가 유지 혹은 감소된 경우가 90.6%, GPT가 유지 및 감소된 경우가 93.9%였으며 신장의 염증 및 기능 지표인 BUN의 유지 및 감소는 91.9%, Creatinine의 유지 및 감소는 98.2%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는 면역플러스가 간장 및 신장에 전혀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항암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장 및 신장의 염증도 치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면역증진 및 골수기능 부활

치료 후 면역활성물질인 IL-12와 IFN- γ 변화분석에서 IL-12는 31.8%, IFN- γ 는 7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혈구 하강은 87.6% 혈소판 하강은 90.6% 헤모글로빈 하강은 76.8%정도 상승 하였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환자 개인별 증상호전도에서 한·양방 병용치료시 체중변화는 유지 및 증가가 75.9%, 식욕의 변화는 유지 및 호전이 78.8%, 전신무력의 변화는 유지 및 호전이 76.8%였습니다. 또한 항암제의 부작용 감소 효과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소화기 부작용인 식욕부진 및 설사는 78.8%, 골수기능의 억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백혈구 하강은 87.6% 혈소판 하강은 90.6% 헤모글로빈 하강은 76.8%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체중감소가 오는데 체중도 유지 혹은 증가가 75.9%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결과는 면역단이 항암제의 주요 부작용인 소화기, 골수를 보호하며 이로 인해서 체중도 증가되며 삶의 질도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